

르비딤에 장막을 치다

¹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²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³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⁴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출17:1-4)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을 가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처음 도착한 곳은 수르라는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친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영적 여행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몇 걸음도 가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르 광야의 시험은 진리에 관한 시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떠나 두 번째 도착한 곳은 신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와 떡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떡은 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선에 내재 되어 있는 기쁨, 다시 말하면 선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떡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께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

출17:1-4

‘르비딤에 장막을 치다’

면,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선과 선의 기쁨을 함께 구합니다. 왜 선과 선의 기쁨을 함께 구할까요? 그 이유는 기쁨이 없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일을 하는 보람이나 가치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떡과 함께 고기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신 광야의 시험은 선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 광야를 떠났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¹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신 광야를 떠난다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인 선과 관련된 시험이 끝났다는 것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

즉 거듭나는 과정은 이렇게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다시 다른 시험이 시작됩니다. 한번은 선에 관한 시험이 왔다 한번은 진리에 관한 시험이 오고 그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 광야를 떠났다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진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는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삶의 아주 미세한 국면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섭리는 인간의 구원 전체를 바라보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섭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내다보시는 주님의 통찰력, 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는 이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앞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지름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일 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면서 부딪칠 여러 가지 난관이나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시고,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각 사람의 성품이나 영적인 특성들을 모두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심지어는 조상부터 후손까지를 모두 내다보시고 섭리하시는데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님의 섭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섭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그렇게 작전상 후퇴하듯 후퇴하는가 하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섭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노정대로 행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신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 역시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르비딤도 또 하나의 시험이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시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르비딤에서의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신 광야에서의 시험이 선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이번에 시험은 진리에 관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기록

출17:1-4

‘르비딤에 장막을 치다’

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막을 치는 것은 시험을 대비해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선과 진리를 주님께서 질서 있게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군대가 진을 치는데, 군사들이나 병기를 일정한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왜 선과 진리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질서에 맞춰 서로 유기적으로 묶으실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시험 가운데서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과 거짓들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경기를 할 때도 선수 각각의 포지션이 있고, 얼핏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략에 따라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상대방의 공격에 수시로 방어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선과 진리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체계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²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진리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리가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의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었던 진리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갈등하는 것이 모세와 다투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험이 깊어질수록 진리에 대한 갈등이나 회의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냉정을 되찾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그때 우리는 '아! 이 행동이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진리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에 대한 원칙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즉 인간관계라든지, 그 밖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앙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 선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선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 그만큼 다시 진리를 원하게 됩니다. 마치 남자가 장성하면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선이 자기 짝이 될 진리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리의 부족을 느낍니다. 그때의 시험이 바로 진리의 시험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의 삶

을 사는 사람에게 진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영적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르비담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 불평을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불평하더라도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에 대해 불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고요, 내가 왜 진리를 알았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³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출17:1-4

‘르비딤에 장막을 치다’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험의 고통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중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그 말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에 휩쓸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유로운 삶이 아니며, 어떻게 보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깊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차라리 내가 진리를 몰랐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시

험이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시험에서 지면 내 안에 있는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내적으로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와 가축과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자녀와 가축**”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 자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자녀와 가축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서도 자녀는 내적 진리를 나타내고요, 가축은 외적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내적 진리는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분별력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외적 진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진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축입니다. 그래서 나와 자녀와 가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자산인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선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새로운 진리가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영적 자산들, 선이라든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들마저 위축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자녀와 가족이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4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진리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리가 주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선 자체이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중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와 신성, 즉 영과 같은 존재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그러니까 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 자체이신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마치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빛으로서 세상에 오는 것처럼 진리이신 주님 안에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중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저 역시 개신교 목사로서 개신교를 포함,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구약에서는 죄의 전가를 위한 희생

출17:1-4

‘르비딤에 장막을 치다’

제물의 머리에 하는 안수,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런 구약 속죄양에 대한 실제 구현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신구약 말씀들 때문인데요,

⁴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⁵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⁶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53:4-6)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 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우리는 이 말씀들을 겉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 외면과 내면, 육과 영,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정말 근본적이어서 모든 게 그 근원부터 달라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겉의 나라에 살면서 속의 나라에 관한 걸 미리 알고자 애를 쓰는 이유는, 우리는 잠시 후면 이 겉의 나라를 떠나 속의 나라로 영원히 살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의 나라를 사전에 준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의 나라는 주님의 신성의 나라, 곧 선과 진리의 나라이므로, 그래서 선과 진리라는, 씨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조직된 주님 말씀을 이렇게 힘써 즐겁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신칭의, 죄의 전가, 회개, 개혁, 거듭남 등 우리가 그동안 겉뜻으로만, 겉의 나라에 맞게만 이해했던 것들을 이제 그 속뜻으로, 속의 나라 실상에 맞춰 새롭게 확인해야 할 많은 것들이

출17:1-4
'르비딤에 장막을 치다'

있는데요, 주님의 자비로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고자 합니다.

네, 계속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주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여호와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시험이 좀 더 깊어지면 신앙인들이 진리를 모독하는 상황에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모독한다는 것은 시험 가운데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진리를 모독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관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재하는 진리 안에

들어 있는 인간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연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신 광야와 르비딤은 모두 광야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시험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시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즉 신 광야는 선에 관한 시험을, 르비딤은 진리에 관한 시험을 나타냅니다.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에 관한 시험과 진리에 관한 시험이 교대로 오는 이유는, 진리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선이 부족하고, 그리고 선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있는데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에 대한 애정이나, 의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의지가 생기면 비로소 악을 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번에는 선에 대

출17:1-4

‘르비딤에 장막을 치다’

한 애정이나 의지가 진리를 추월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리의 시험이 옵니다. 왜 시험이 올까요? 지옥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의해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새 교회 가르침을 잠깐 소개할 때, “시험은 인간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비밀” 8562번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8562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Temptation attacks that which a man loves and longs for (n. 4274, 4299).

이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에 관한 주석 중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에 대한 내용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선을 행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때 지옥은 진리가 충족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주님은 그 시험을 오히려 이용하세요.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 선이나 진리의 부족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하십니다. 방해가 크면 클수록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을 극복할 때 우리 안에 선과 진리는 더 풍부해지며, 한 차원 높아집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로 끌어 올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극심한 시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계속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험이 깊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목적이 매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시81:7)

아멘

원본
2016-07-03(D1)
청주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16(D6)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